셰일혁명 이후의 유가변동 관전법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박 주 헌**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이미 2012년 연두교서에서 “우리에겐 100년간 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가스가 있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셰일혁명은 미국 경제의 구조를 송두리째 바꿔 놓고 있다. 실제로 휴스턴 항구의 수출량은 석유화학제품 수출 증가에 힘입어 뉴욕 항을 제치고 미국 내 1위를 차지했고, 해외로 나갔던 미 기업들이 싼 에너지를 찾아 자국 내로 유턴하는 리쇼어링(reshoring)이 석유화학업체는 물론 모토로라, 애플, 월풀, 캐터필러 등 다른 제조업체로도 확산하여 2008~2013년 기간 중 100여개에 달했을 정도다.

미국이 글로벌 에너지시장에서 수퍼파우어로 등극하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우디아메리카’로 상징되는 미국의 지위 변화는 세계 에너지시장의 수급 질서 변화를 의미한다. 현재 진행 중인 저유가 추세가 중요한 증거다.

이번 저유가 추세는 세계 경제침체에 따른 수요 증가의 둔화도 원인이지만, 셰일혁명에 따른 공급 증가도 한 몫 단단히 하고 있다. 사실, 10여 년 전만 해도 석유생산 감소가 곧 시작될 수 있다는 피크오일 논쟁이 한창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비교적 쉽게 생산할 수 있는 소위 이지오일 매장량이 서서히 고갈되기 시작해 석유생산 증대를 위해서는 심해, 극지 등 오지까지 개발해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셰일혁명이 없었다면 석유생산의 한계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고유가 추세를 넘어 초고유가 시대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러던 차에 발생한 셰일혁명에 의한 석유공급 증가는 피크오일 논쟁을 잠재우며 공급 우려를 씻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인 미국이 셰일혁명을 통해 자국 생산량 증가로 수입을 대체하고 더 나아가 순수출국으로 탈바꿈하려는 움직임은 최대 산유 지역인 중동을 압박하기 충분했다. 시장점유율에 민감한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셰일기업을 축출하려는 목적으로 감산을 철회하고 저유가를 묵인하는 전략을 택하게 된 것이 현재 저유가의 근본적 원인으로 분석된다.

사우디아리비아의 전략은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된다. 작년 후반기부터 미국의 생산량과 생산시추기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유가는 올 초 최저점(1월 21일 22.83달러/배럴, 두바이산)에 이른 후 상승을 시작해 최근 연초 대비 100% 이상 오른 40달러 중후반대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향후 유가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 국제 원유시장의 스윙프로듀서(수급조절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으로 임무교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미지역의 원유생산비는 평균 50달러 근방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향후 유가는 현재보다 다소 오른 40달러 중반에서 50달러대에서 1차 균형을 맞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이후에는 수요의 증가와 이란 등 OPEC국가들의 생산량 증대 및 비전통에너지의 기술발전에 따른 생산비 하락 속도에 따라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14년 상반기까지 이어졌던 100달러 내외의 고유가 수준으로의 회복은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셰일오일 생산 등이 또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유가가 50달러에 접근해 가자, 줄어들기만 했던 미국 내 원유시추기 수가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다시 미미하나마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상당 기간 50달러에서 7, 80달러 내외 구간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